

국가 안녕, 호국, 남북통일 기원
2014년 법왕사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화엄의 바다에 다 모이십시오”

법왕사에서는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1년간 3회에 걸쳐 백고좌대설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첫번째 법회인 제26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実相 합장



•100일차

4월 25일 회향 법회
무관스님 해인사 홍제암

- ◆ 일시 : 2014년 1월 16일 ~ 4월 25일 (100일간) 법문시간 매일 오전 11시
-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

법사명단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76일차	4월 1일 ㉔	운산스님 (비구니)	운문승가대 강사	84일차	4월 9일 ㉔	정인스님	창원 불지사 주지
77~79회차 4월 2일~4일(음 3월 3일~5일) 제주이동순례법회				85일차	4월 10일 ㉔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오재	
80일차	4월 5일 ㉔	정목스님	정토사 주지	86일차	4월 11일 ㉔	종호스님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
81일차	4월 6일 ㉔	지철스님	대구동화사 초당암	87일차	4월 12일 ㉔	화평스님	익산 심곡사 주지
83일차	4월 8일 ㉔	원순스님	송광사 인월암	88일차	4월 13일 ㉔	해월스님	합천 해인승가대학장
				89일차	4월 14일 ㉔	영인스님	여수 흥국사 주지

제27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 : 2014년 5월 13일(화)
회향 : 2014년 8월 20일(수)

제28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 : 2014년 9월 14일(일)
회향 : 2014년 12월 22일(월)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4. 4 | Vol. 239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화엄신중 천일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새해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천일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음력 12월 15일) 입재하여 2016년 10월 10일(음력 9월 10일) 회향하는 이번 천일기도는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는 대기도법회로 1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또한 매월 보름날 오후 2시에는 화엄경 약찬게 49독 기도를 봉행하고, 천일법회 때마다 천주를 만들 30알의 염주를 드립니다. 천일기도비는 입재시 10만원, 매월 보름마다 30개월 동안 3만원씩입니다. 또한 천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들에게는 천일기도 회향 기념 수계를 드립니다.

◎ 천일의 발원

삼일수심(三日修心)은 천재보(千載寶)요
백년담물(百年食物)은 일조진(一朝塵)이니라.
삼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와 같고
백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 되느니라.

자경문의 말씀을 되새기며 몸 낮추는 계절입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이 경을 믿고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면
초발심에 문득 바른 깨달음을 얻어 불국토의 바다에
편히 앉게 되나니 이를 일러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하셨습니다.
걸음, 걸음들이 더디지만 하여 급한 마음 밭에 어리석음의
씨앗을 심지 않도록 화장세계 비로자나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지켜주시기를 발원합니다.

탐욕심이 지은 업으로 뒤틀려 어긋나 악연의 고리에 걸려 든
인연들이 자재하신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으로 어긋남의
고리를 끊고 선한 인연되어 화락하게 하옵기를 발원합니다.

여기, 법왕사 불자들이 천일의 원을 세웠습니다.
신심깊은 불자들의 한마음 한마음이 모여 천일의 원이
완성되는 날 소구소원하신 모든 발원이 성취되어
너도 관세음, 나도 관세음,
우리 모두 관세음 되게 하여지이다.



천일기도 안내

- 입 재 : 2014년 1월 15일 수요일 (음 12월 15일)
- 회 향 :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음 9월 10일)
- 천일법회 : 합동재일은 매월 초하루, 보름 오후 2시 본당 2층에서 약찬게 49독 후 축원
- 천일염주 : 천일법회시 천주를 제작할 30알의 염주와 염주 주머니를 드립니다.
- 기 도 비 : 입재시 10만원, 매월 초하루 3만원(30개월)

※ 1000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들에게는 1000일기도 회향 기념 수계를 드립니다.
※ 입재시 100알의 염주와 1000주 염주를 만들 염주 줄을 드립니다.

C.o.n.t.e.n.t.s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Vol. 239호



- 04 깨침의 향기
염불도 크나큰 공덕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8 비술산방
부처님의 대자대비 · 실상 주지스님
- 10 법왕논단 | 종교와 철학
거북의 털, 토끼의 뿔
집착이 만들어낸 환상 · 본원스님
- 14 불교상징의 세계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단청 · 조명래
- 20 전시감상 | 만해선사
만해선사 오도송
- 22 명찰순례
용화세계를 꿈꾸는 김제 모악산 금산사
- 26 법왕사소식
- 28 법왕사게시판
- 30 해오름소식
- 31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 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 수성 라 00017 |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 불기 2558(서기 2014)년 4월 01일 발행 | 통권 239호 | 종무소 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 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 강영도 |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 편집위원 모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윤, 대일, 강선옥, 대혜궁, 묘향심, 반야화 | 기획 · 제작 · 디자인 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발원합니다.

염불도 크나큰 공덕

원공당 정무 대종사



염불은 자신의 본성이
부처임을 믿고 자기 마음
가운데서 부처를 찾는
것입니다. 염불은 다른
어떤 수행법보다 실행하기
쉽고 증득하기 쉬운
이행도(易行道)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염불(念佛)도 있습니다. 염불은 글자 그대로 마음 속으로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며 공경(恭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정근이나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정근이 바로 염불인 것입니다.

염불은 자신의 본성이 부처임을 믿고 자기 마음 가운데서 부처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염불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법의 공통된 목표이기도 하지만 염불은 다른 어떤 수행법보다 실행하기 쉽고 증득하기 쉬운 이행도(易行道)입니다.

아함경에 보면 삼념(三念), 오념(五念), 육념(六念), 십념(十念) 등의 염법(念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념법(三念法)은 여래 십호와 같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불명승 삼보를 생각하는 것이며, 여기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계율과 선근공덕을 생각하는 것이 오념법(五念法)이며, 여기에 보시를 생각하는 것을 더하면 육념법(六念法), 즉 육수념이 되는 것입니다. 육수념에 마음의 조용함을 염하는 염휴식(念休息), 숨 쉬는 것을 세고 장단 등을 아는 염안반(念安般), 이 몸은 항상(恒常)하지 않음을 생각하는 염신(念身), 이 육신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염사(念死)를 더하여 십념(十念)이라고 합니다.

또한 염불에는 이법(理法)으로서의 부처님을 염하는 법신염불(法身念佛)과 부처님의 공덕이나 부처님의 상(相)을 마음에 떠올려서 보는 관념염불(觀

念佛), 부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청명염불(稱名念佛)이 있습니다. 염불이 지금처럼 중요한 수행법의 하나로 자리하게 된 것은 정토신앙(淨土信仰)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정토신앙이란 부처님의 본원(本願)에 의지하여 정토에 왕생(往生)하고자 하는 신앙으로 정토왕생의 방법으로 염불을 권장하였습니다. 마명보살의 기신론과 용수보살의 십주비바사론, 그리고 지도론, 세친보살의 정토론 등에 보면, 염불은 부처님의 무량공덕과 근본서원을 확신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불보살과 감응하고 불보살의 가피를 입어, 마치 순풍에 돛단배와 같이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도 쉽고 수행하기도 쉬운 이왕이수(易往易修)의 행법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미타경(阿彌陀經)에는 설사 부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일지라도 죽음에 이르러 지극정성으로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을 열 번만 부르면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미타불이 수행자이던 범장비구가 세자재왕 부처님께 서원한 48대원 중의 하나인 십념왕생(十念往生)입니다. 염불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려운 경전(經典)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수행법입

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께서 무애박을 두드리면서 누구든지 ‘나무아미타불’만 지극정성으로 부르면 왕생극락(往生極樂)할 수 있다고 가르치신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염불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사랑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사모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건성으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마음으로는 한결같이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염불을 하는 몰아일체(沒我一切)가 되어야 진정한 염불인 것입니다. 『업보차별경』에서는 큰 소리로 염불하고 송경(誦經)하는 수행에 열 가지의 공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공덕은 바로 ‘능히 줄음을 막고, 하늘의 마군이 놀래 두려워



마음으로는 한결같이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염불을 하는
몰아일체(沒我一切)가
진정한 염불입니다.

하며, 음성이 시방에 가득 퍼지고, 삼악도의 고통이 멈추며, 다른 잡음이 섞여 들어오지 못하고,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되며, 용맹한 마음으로 정진하게 되고,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며, 항상 삼매(三昧)가 현전하고, 반드시 정토(淨土)에 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적경』에서는 ‘높은 소리로 염불하면 마군들이 모두 두려워 흩어진다’고 하였으며, 『문수반야경』에서는 ‘수행하는 이가 스스로 우둔해서 능히 관찰하지 못한다면 다만 생각과 소리만 계속 이어지게 하라. 그래도 반드시 불국토에 왕생할 수 있리라’고 하였으며, 『대품경』에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도 염불을 한다면 곧 고액이 없어지고 그 복이 다함이 없는데 이를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증일아함경』에는 ‘한 염부제의 온갖 중생을 사사(四事)로 이바지한다면 공덕이 한량이 없으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이가 착한 마음이 계속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잠시 동안만이라도 염한다면 그의 공덕됨은 위의 비유를 훨씬 지나서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다’고 하였으며 또 『화엄경』에는 ‘자재한 마음이 염불문에 머무르면 자기 마음에 있는 즐기고 싶은 것을 가히 따름을 알 것이니 온갖 부처님께서 언제나 그 모습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고 하였으니 염불의 공덕이 구산팔해(九山八海)보다도 높고도 넓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친 소가 채찍을 맞고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고 싯다르타 태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태자는 그 후 홀로 앉아 사색하는 버릇이 생겼고 결국에는 출생 시에 아시타 선인의 예언대로 왕궁의 부귀영화와 전륜성왕의 길을 버리고 출가하여 설산에서 6년간의 고행 끝에 우주의 대도를 깨쳐 만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이는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에 나오는 내용으로 여러 불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처럼 어린 태자는 천성이 자비로워 보잘것없는 미물까지도 불쌍히 여겨 고뇌에 싸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뇌는 사문유관(四門遊觀)을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늙은 사람을 보고 세월은 모든 것을 덧없이 늙게 하고 초라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꼈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카필라 왕국은 농업을 주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봄에 풍년을 기원하는 춘경제(春耕祭)가 열렸습니다. 일곱살이 된 싯다르타 태자는 아버지 정반왕을 따라 관농행사를 참관하였습니다.

그때, 농부들이 이끄는 쟁기가 지나간 땅속에서 기어 나와 꿈틀거리는 벌레를 새가 날아와 쪼아 먹는 광경과 지칠 대로 지



병든 사람을 보고선 인간이란 언제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근심에 잠겼으며, 장례식 행렬을 보고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슬퍼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강자와 약자가 있어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배를 당하고, 못 생명은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가?

이러한 고뇌의 근원은 자비심이라 할 것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원래 자(慈)와 비(悲) 두 글자의 합성어인데, 자(慈)는 온갖 생명체를 사랑해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悲)는 온갖 생명체를 불쌍히 여겨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즉, 크게 사랑하고 크게 가엾게 여겨 괴로움을 없애주는 마음입니다.

싯다르타 태자는 어릴 적부터 자비의 평화사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비는 삼라만상을 내 몸 같이 지극히 사랑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여 새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그는 왕관을 쓰고 창검을 들어서 약한 자를 꺾어 정복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많은 중생을 구제할 길을 찾아 수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석가세존께서 자비무적의 평등평화사상, 이타자리의 무아사상을 널리 알려 인류평화의 무한한 원동력을 제공하신 것이 유년기의 춘경제 때부터 마음속 깊이 싹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못 생명체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동심동조하는 모습을 동체대비(同體大悲)라 합니다. 『화엄경』에 보면 대비에 대해, ‘중생이 귀의할 곳이 없고, 사악한 길에 떨어지고, 선근이 없고, 생사에 잠자고, 욕(欲)에 묶여 있고, 오랜 병을 가지고 있고, 선법을 바라지 않고, 제 불의 법을 잃음을 관찰하여 그때마다 대비를 일으킨다’ 고 했습니다.

『사분율(四分律)』에 보면 여름에 스님들이 탁발과 만행을 다니면 길에 무수히 많은 벌레들을 밟아 죽이게 되므로 하안거를 시행하고, 뜨거운 물을 길거나 바깥 땅에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하시고, 물을 걸러 마시라고 한 것에서도 자비의 지극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중생들의 마음을 봄별같이 화평하게 어루만지는 부처님의 자비원력은 5백생 이전부터 닦아온 영원한 중생구제 보살도의 실천행입니다.

깨끗하고 환한 마음이어야 부처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비의 서광은 자성을 밝히는 묘법인 것을 우리는 세간살이 속이지만 항상 명심해서 생활의 좌표로 삼아야겠습니다.

거북의 털, 토끼의 뿔 집착이 만들어낸 환상

본원스님 / 토굴 정진중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집착한 명예·이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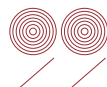
애정 때문에 근신한다.

자기가 소유한 것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변하고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집착과 욕망의 집에 머물러 있지 말자.

〈숫타니파아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중간을 말하니 그 중간이란 것이 반드시 희미한 것이 아닐진대, 있는 곳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네가 중간을 지적하여 보아라. 중간이 어디 있느냐. 어떠한 다른 장소에 있느냐. 몸에 있느냐. 만약 몸에 있다면 변두리라면 중간이 아니고 가운데라 하면 안에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 어떠한 장소에 있다면 그 자리를 표시할 수 있느냐, 표시할 수 없느냐. 표시

할 수 없다면 없는 것과 같고, 표시한다면 그것이 정해진 것일 수 없으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표지를 세워서 중간이라고 표(標)하였을 때, 동에서 보면 서가 되고 남에서 보면 북이 되어서 표시하는 그 자체가 이미 혼란한지라, 마음도 어지러운 것이다.”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죄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예전에 보니 부처님

께서 목건련, 수보리, 부루나, 사리불 네 분 제자들과 함께 진리를 말씀하실 때, 늘 말씀하시기를, ‘지각(知覺)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아니하여 아무 데도 있는 데가 없다’고 하셨나이다. 온갖 것에 집착함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신 것인가 하오니, 저도 집착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면 되겠나이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의 전체를 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네가 말하기를 지각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아무 데도 없다고 하는데 세간의 허공에, 물에, 물에 있는 것, 날아다니는 것, 모든 물상(物象)을 가리켜서 온갖 것이라고 한다. 네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이냐, 없다는 것이냐. 없다면 거북의 털, 토끼의 뿔과 같은 것이니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나. 집착하지 않을 것이 있다면 없다고 할 수 없느니라.

형상이 없으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아니면 형상이 있는 것이니, 형상이 있으면 존재하는 것인데 어떻게 집착이 없겠느냐. 그러므로 온갖 것에 집착 없는 것을 지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여름에 문에다 치는 대발(대자리)을 가만히 보면 묘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발은 안과 밖이 따로 없을 뿐더러 촘촘하게 엮어진 단순한 모양이다. 하지만 희한한 것은 대발 안쪽에서 바깥을 보면 밖의 정경이 환히 보이는 반면,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면 안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에서는 바깥 세계가 그대로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내부 공간)을 볼 수 없는 대발과도 흡사하게 닮은 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이다. 똑 같이 생긴 사람이지만 지혜에 눈 뜬 이에게는 사물의 실상이 환희 드러나며 그 허실을 알 수 있다. 반면 무명(無明)에 덮인 어리석은 범부들의 눈과 소견으로는 밝고 어둔 이치를 도무지 알 수도 없으며, 모두가 어리석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이다.

백내장에 걸린 사람의 눈에 헛것이 보인다고 해서 실제 헛것이 있음이 아니며, 장님 눈에 일월성신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빛이 없는 게 아니다.

질펀한 욕락 속에 덧없는 미몽(迷夢)을 헤매는 중생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미몽에 빠진 이 시대 사람들은 말라비틀어진 잡초 같이 쓸모없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지식, 관념, 가치관, 사상, 주의·주장 등에 병적으로 집착, 애착, 탐착을 하면서 닳을 대로 닳아빠져 바늘 하나

꽃을 자리조차 없이 아상(我相)과 아집(我執)으로 가득 차 있다.

온갖 불순물 찌꺼기로 더럽혀져 오염된 탁한 물로 채워진 그릇을 비우지 않는 한, 맑고 신선한 물을 부어 담을 수 없듯이, 어설피게 마구 채운 만큼, 정신세계는 혼탁해지고 본질적인 것을 잃게 된다. 때문에 제대로 비워야 그 만큼 맑아지고 넉넉해지는 것이 바로 '정견을 담은 질그릇'이다.

● ●

전체를 헤아리는 안목 필요

군위 화산에 있는 인각사(麟角寺)는 고려 중기 일연(一然, 1200-1289) 스님이 머물며, 우리 고대사를 풍요롭게 한 삼국유사(三國遺事)를 저술한 산실이자 스님이 입적한 절이다.

크지 않은 아담한 고찰 경내에는 스님의 열반송(涅槃頌)이 뜻있는 묵객(墨客)들에 의해 시비(詩碑)로 남겨져 찾는 이들을 맞이한다. 시비 앞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보노라면, 8백년 무상한 세월의 이끼를 벗고 시대를 초월한 정신적 지주로서 그 눈푸른 수행자가 '사람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전하는 것 같아 가슴 시리도록 새삼 사람 살아가는 고단한 삶의 여정이 안쓰럽고 측은하며 애처롭다.

생사의 물결에 부침하며 업력수생(業力受生)하는 중생은 생전에 지은 선악의 카

르마(업, karma) 법칙에 의해 이곳에서 저 곳으로, 다시 여기서 저기로 부질없이 물거품이 일어났다 스러지듯이 윤회의 시슬에 묶여 끝없이 나고 죽는 생멸(生滅)의 파도에 휩쓸린다. 살아 생전에 끔찍이도 아끼고 위하며 사랑하고 온갖 정성으로 받들어 기른 것이 인간의 몸이지만 죽으면 아무 것도 없다. 생각하면 참으로 덧없고 허무한 것이, 개는 죽으면 삼복더위에 비싼 고기 값을 치르지만 사람은 그저 죽음뿐이다. 그래서 모두가 숨이 멎어버린 죽은이의 곁에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그 자리에 있기를 꺼린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내쫓고 들이쉬는 호흡이 중단된 육신은 이처럼 어디에도 쓸모없는 혐오스러운 물건이 되고 마니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허망하며 애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 '정도(正道)의 개념'을 두고 "인연법, 연기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연기의 법칙에서 어긋나지 않으며, 인과법을 벗어나지 않는 올바른 실천수행"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정도의 정견(正見)'이라고 함은 사물의 표면인 겉모습만이 아니라 전체를 관조(觀照), 헤아리는 안목이 열린 지혜로써 보는, 사람의 몸이란 그다지 아름답지도 깨끗하지도 않다는 것을 반야(般若) 사상이 가르치는 공(空)의 차원에서 배우고 인식하여야 한다.

● ●

희로애락은 착각이 빚어낸 환상

법의 실상(진리)에서 지켜볼 때, 사람을 그리워하며, 온 세상이 사랑의 기쁨으로 가득 찬 듯해도 그것은 착각으로 인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을 때 역장이 무너지는 슬픔과 비애에 젖어 절망을 하곤 하지만, 실상 그 또한 착각이며 꿈 같은 환상으로 마치 영화 속의 필름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과도 똑 같은 이치다.

객관에 끄달려 사는 우리 삶이 얼마나 착각이 가지는 인식의 오류에 빠져있고 자기도취에 젖어있는 나머지, 법의 실상으로 부터 아득히 멀어진 꿈속을 헤매는 듯한 전도몽상(顛倒夢想, 평범한 도리를 어기고 바른 이치를 벗어나 허상을 쫓는 행위)

의 일상인가를 이야기를 통해 적어도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

가령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보따리에 담아 가지고 다니라고 하면 어느 누구이건 질색을 하고 기겁을 하며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추하며 기괴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부정물(不淨物)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어찌 하겠는가. 그처럼 불결하고 혐오스러우며 괴해서 다닐 만큼 무섭고 두려운 부정물을 저마다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것은 남의 것이 아닌 바로 나의 몸속에 그러한 것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내 몸은 오래지 않아 반드시 스러지고, 스러지면 즉시로 썩어버리는, 부실하기 이를 데 없이 덧없는 요소로 이루어진 집합체인 것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나 깨나 오로지 '나'만 들먹이면서 평생토록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면서 잘 먹이라, 잘 입히라, 기분 좋은 소리 들려주라, 좋은 학교 골라 배우게 하라, 명예·이익을 좇으라, 남들과 경쟁하여 앞서 가게 하라, 좋은 사람 만나 사랑을 이루어 종자를 번식시키라, 여기저기 좋은 곳 구경시키라 등등 갖은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기르고 위하며 아낀다. 하지만 아끼고 위하는 만큼 보람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가칠단청의 실례(보물 제141호 서울 문묘 명륜당)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단청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우리나라 단청의 조형양식은 건물의 각 부재에 장엄되는 문양의 밀도와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구분된다.

단청은 크게 신축건물과 보수건물에 따라 달라진다. 신축건물에는 처음부터 전체

적으로 단청이 시공되는 반면에, 보수건물은 구(舊) 부재에 남아있는 단청과 동일한 양식으로 교체된 부재의 면에 단청이 부분적으로 시공된다.

또한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불교단청,

◆ 단청의 종류

대 상	종 류	
신축 건축물(백골집)	일반단청(신색단청)	
	고색단청	
보수된 신 부재면(기존 단청이 있을 때)	땜 단청(신색 땜 단청)	
	고색 땜 단청	
건축물의 성격	불교단청	대웅전 등 사찰의 전각
	궁궐단청	정전, 침전 등
	능원단청	정자각, 비각 등
	유교단청	서원, 향교 등
단청 양식의 장엄등급	1등급	금단청, 갓은금단청
	2등급	열금단청, 금모로단청
	3등급	모로단청
	4등급	긋기단청, 모로긋기단청
	5등급	가칠단청

궁궐단청, 유교단청으로 크게 구분되어지며, 이에 따라 각각 상징하는 문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건물의 신·개축여부,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단청의 종류는 위의 표와 같다.

단청 양식의 종류

건축물이 신축되어 모든 부재가 단청을 하지 않은 상태를 ‘백골단청’이라 한다. 이 상태를 간혹 고색단청(古色丹靑)의 상대적인 개념에 비겨 ‘신색단청(新色丹靑)’ 또는 ‘신단청(新丹靑)’이라 부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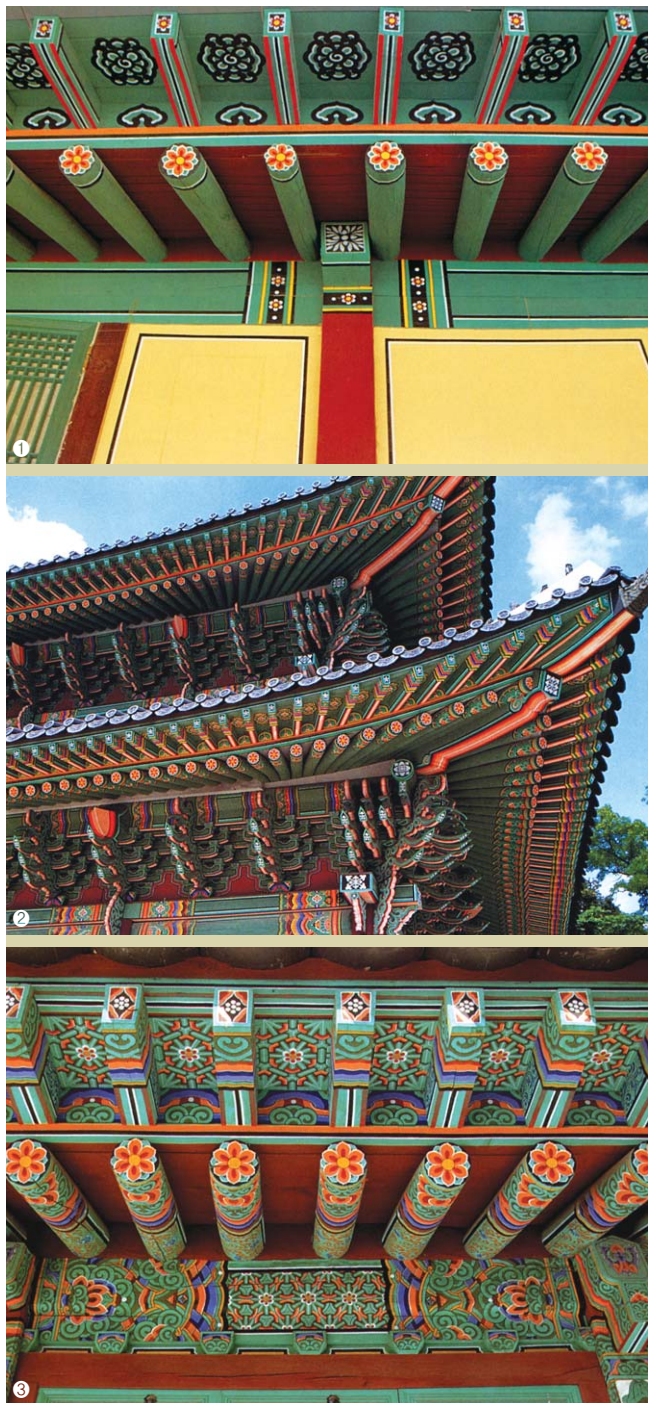
우리나라 단청양식은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가칠단청, 긋기단청, 모로단청, 열금단청, 금단청으로 크게 다섯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가칠단청

가칠단청은 부재의 영구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낮은 등급의 단청양식이다. 각종 문양을 전혀 장식하지 않고 몇 종류의 색으로만 2회 이상 반복 칠해서 마무리한다. 가칠단청에 사용되는 안료는 녹색계통의 뇌록(靑綠)과 붉은 색 계통의 석간주(石間朱)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창방 이상의 가로부재에는 뇌록을 가칠하며, 기둥을 포함한 그 이하의 부재와 합각판 등에는 석간주를 가칠한다.

가칠단청은 주로 서원이나 향교, 사찰의 요사채 등에서 적용된다.



① 굿기단청의 실례
(경주 금천사 요사채)
② 모로단청의 실례
(국보 제225호 창덕궁 인정전)
③ 열금단청의 실례
(서울 봉원사 반야암 칠성각)

굿기단청

가칠단청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부재에 바탕칠을 한 후 먹·분선굿기로 마무리하는 단청이다.

먼저 각 부재에 적합한 바탕색을 칠하고 건조 후에 부재의 형태에 따라 먹·분선을 복선으로 굿는데, 창방 이상의 목 부재와 벽면에만 선굿기를 하고 석간주가 칠해지는 기둥 이하의 부재에는 생략한다. 또한 부연, 서까래, 출목 등의 마구리에는 매화점, 연화문, 태평화 등의 간단한 문양을 넣기도 한다.

굿기단청은 주로 서원이나 향교, 사찰의 요사채 등에서 적용된다.

모로단청(머리단청)

‘머리단청’ 또는 ‘모로단청’이라고 하는데, 이는 목 부재의 끝 부문에만 머리초 문양을 장식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것으로 볼 때 ‘모로’란 ‘머리’의 발음이 변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휘 장식을 포함해 머리초 문양의 적용범위는 목 부재 길이의 1/3 정도로 잡는 것이 보통이다. 부연과 서까래 등에는 처마 끝 부분에만 머리초를 장식하고 창방, 평방, 도리, 대량 등에는 양단에 각각 머리초를 장식하며, 부재의 중간(계풍)에는 뇌록 바탕의 선굿기로 마무리한다.

모로단청은 전체적으로 복잡하거나 화

려하지 않고 단아한 느낌을 주며, 주로 사찰의 누각, 궁궐의 부속건물, 정자 등에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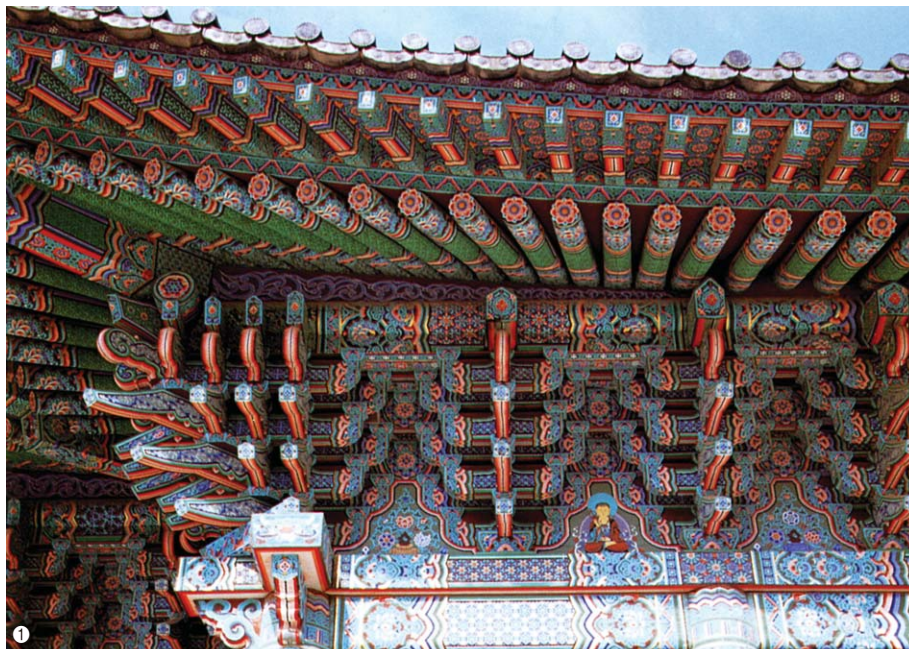
열금단청

열금단청은 단청의 최고등급인 금단청과 모로단청의 절충형으로 달리 ‘금모로단청’이라고도 한다.

‘열금’이란 부재의 끝 부문에 머리초 문양이 들어가고 그 중간부재(계풍)에 금문이나 당초문을 열기설기 그려 넣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란 설이 있다. 모로단청에서는 이 부문에 뇌록 바탕의 선굿기로 마무리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열금단청을 사용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는 고가의 단청 시공비를 절감하려는 의도에서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을 모시는 사찰의 금당(金堂)에는 그 격에 맞게 금단청으로 장엄되어야 하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금단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왕왕 이런 절충양식이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모로단청을 사용하는 종각, 조사전, 삼성각 등에도 품격을 높이기 위해 열금단청을 채택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사찰 이외의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양식이다.



① 금단청의 실례(순천 송광사 대웅보전) ② 갓은금단청의 실례(시흥 영각사 무량수전)

금단청

금단청은 최고 등급의 장엄 양식이다. 이 양식에 비단 ‘금(錦)’ 자를 붙인 이유는 비단에 수를 놓듯이 모든 부재를 복잡한 문양과 화려한 색채로 장식하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금단청 양식에 금문(錦紋)이 추가로 장식되어서 ‘금단청(錦丹青)’이라 하였다.

금단청의 머리초에는 병머리초, 장구머리초, 겹장구머리초 등의 문양을 적용하고 곱쟁이(소용돌이)에 반엽을 추가하는 등

화려함을 극대화한다. 부재의 중간(계풍)에도 각종 금문을 장식하고 중심부에 풍혈, 안상(眼狀)을 구획해 그 안에 용, 봉황, 학, 신수, 화조, 산수, 사군자, 비천, 인물 등의 별화를 장식한다.

또한 문양 전체의 황색 선에 금박(金箔)으로 도금해 찬란한 후광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포벽에는 불벽화를 그려 각종 부처상을 묘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금단청은 대웅전, 대웅보전 등 사찰의 중심 전각에 적용된다.

갓은금단청

금단청보다 문양을 밀도 있게 도채하고 각종 별화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고분법이나 돌움질을 이용해 문양을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그 위에 금박을 사용해 찬란한 광채의 장엄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갓은금단청은 금단청을 보다 화려하게 장엄하려는 의도에서 발전시킨 것으로 금단청과는 양식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찰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상 건축물의 성격과 주변 환경 등을 잘 살펴서 격에 부합되는 단청을 도채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장엄이 지나쳐 부처님을 모시지 않는 부속 전각이나 요사채, 일주문 등에 최고 등급인 금단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격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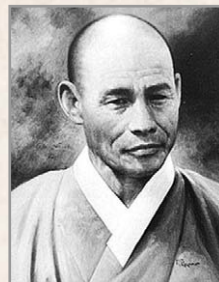
만해선사 오도송

男兒到處是故鄉(남아도처시고향)
사나이 이르는 곳마다 고향이거늘

幾人長在客愁中(기인장재객수중)
그 누가 오랫동안 객수에 젖었는가

一聲喝破三千界(일성갈파삼천계)
한 소리 큰 할에 삼천세계를 타파하니

雪裏桃花片片飛(설리도화편편비)
눈 속에 도화가 조각조각 나는 구나



설악산 오세암에서 좌선 중이던 만해선사는 갑자기 바람이 불어 무슨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의심하는 마음이 씻은 듯 풀려 이 오도송을 지었다고 한다.

만해(萬海·卍海) 선사는 1879년 8월 29일 충청남도 홍성(洪城)에서 출생하였다.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했으나 실패하자 1896년 설악산 오세암(五歲庵)에 들어갔다. 그 뒤 1905년 인제의 백담사(百潭寺)에 가서 연곡(連谷)을 스승으로 승려가 되고 만화(萬化)에게서 법을 받았다.

선사는 '나는 왜 중이 되었나' 라는 글에서 '넓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생활의 방편으로 집을 떠나 1896년 설악산 오세암(五歲庵)에 입산하여 처음에는 절의 일을 거들다가,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고 출가이유를 밝히고 있다.

출가 직후에는 오세암에 머무르면서 불교의 기초지식을 섭렵하면서 선(禪)을 닦았다. 이후 다른 세계에 대한 관심이 깊은 나머지 블라디보스톡 등 시베리아와 만주 등을 여행하였다.

1905년 재입산하여 설악산 백담사에서 연곡을 은사로 하여 정식으로 득도하였다. 불교에 입문한 뒤로는 주로 교학적(敎學的) 관심을 가지고, 대장경을 열람하였으며, 1910년에는 불교의 유신을 주장하는 논저 『조선불교유신론』을 저술하였다.

1919년 3·1독립운동 때 백용성(白龍城) 등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하여 참여하고, 1920년 만세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아 3년 동안 옥살이를 하였다.

1926년에는 한국 근대시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인정받는 대표적 시집 『님의 침묵』을 발간하였다. 이곳에 수록된 88편의 시는 대체로 민족의 독립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사랑의 노래로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줄곧 문학작품활동을 하다가 1944년 5월 9일 성북동의 심우장(尋牛莊)에서 중풍으로 별세하였다. 동지들에 의하여 미아리 사설 화장장에서 다비된 뒤 망우리 공동묘지에 유골이 안치되었다.



용화세계를 꿈꾸는 김제 모악산 금산사

중생들의 안락과 희망을 위해 건립된 도량, 금산사는 14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백제의 고찰로 미륵근본도량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는 전북 김제시 모악산 도립공원 내에 있다. 만경평야의 너른 들을 품고 있는 모악산(母岳山)은 상봉에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듯한 바위가 있어 '모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미륵전

1635년에 지은 것으로 현재는 1705년에 다시 적은 필사본만 전해져 내려오는『금산사사적(金山寺事蹟)』을 보면 금산사(金山寺)는 백제 법왕(法王)이 즉위한 599년에 자복사찰로 창건되었다. 자복사찰(資福寺刹)이란 국가의 번영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들어진 사찰을 말한다.

이후 금산사가 대사찰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통일신라 경덕왕 때 진표율사에 의해서이다. 진표율사는 6년여의 중창으로 금산사를 대사찰로 만들었으며 이후에도 많은 고승들이 머물면서 사격을 높여나갔다. 금산사를 미륵신앙의 성지로 만든 것도 진표율사이다.

후백제 때 견훤이 금산사에 유배된 적이 있었다. 견훤이 왕위를 다투는 아들 금강에게 물려주려고 하자 이를 안 신검, 양검, 용검 등 견훤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금산사에 잠시 가뒀었다. 이때 견훤이 금산사를 부분적으로 중수하기도 했다고 한다.

고려 문종 33년(1079년) 혜덕왕사(慧德王師)가 퇴락한 절을 중창하여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운을 맞게 된다. 현존하는 오층석탑과 석련대, 노주(露柱) 등은 이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선조 25년(1592년) 임진왜란 당시, 처영 뇌묵대사 등 1천여명의 승병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

유재란 때, 왜군에 의해 절 전체가 완전히 불타기도 했다. 이때 진표율사가 건립한 미륵전을 비롯하여 혜덕왕사가 경전 간행을 위해 세웠던 광고원 등이 불길에 사라지는 비운을 맞는다.

선조 34년(1601년)에 수문(守文) 대사가 복원불사를 시작하여 사찰 일부가 재건되었다. 이후에도 중수를 거듭하다 1961년 월주스님이 주지로 부임하여 대부분의 당우들을 중수하고 새롭게 건립하여 오늘날의 금산사 모습을 이루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1986년 원인 모를 화재로 대적광전이 소실되었으나 1994년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었다.

금산사는 한국 미륵신앙의 근본도량이다. 미륵신앙의 상징은 미륵전이다. 특히 미륵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3층 법당으로 내부는 통층(通層)으로 되어 있다. 국보 제62호인 웅장한 규모의 미륵전은 미래의 부처님인 미륵불이 용화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라는 것을 상징화한 법당이다.

미륵전은 신라 경덕왕 21년(762년)부터 혜공왕 2년(766년) 사이에 진표율사가 가람을 중창하면서 미륵보살에게 계를 받았던 체험 그대로를 가람에 적용하여 세웠다. 안에는 미륵장륙상을 본존으로 모셨으며 남쪽 벽에 미륵과 지장보살에게서 계를 받는 광경을 벽화로 조성하였다. 미륵전은



① 보물 제25호 오층석탑

② 보물 제27호 육각다층석탑과 대적광전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다가 인조 13년(1635년)에 수문대사가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하였다.

미륵전은 용화전, 산호전(山呼殿), 장륙전 등 여러 가지 이름을 지녔다. 특히 1층에는 ‘대자보전(大慈寶殿)’, 2층에는 ‘용화지회(龍華之會)’, 3층에는 ‘미륵전(彌勒殿)’ 등 각 층마다 다른 편액이 걸려있는 것도 무척 특이하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가 미륵불의 세계를 나타낸다.

미륵전 안에는 높이가 11.82m인 미륵불 본존과 삼존불 중의 협시가 8.79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 진표율사가 미륵전을 조성할 당시에는 3년간에 걸쳐 완성한 미륵장륙상 한 분만이 모셔졌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수문대사가 다시 복원 조성하면서 소조 삼존불로 봉안했는데, 1934년에 화재로 일부가 소실되었다. 4년만인 1938년 우리나라 근대 조각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김복진 선생이 석고에 도금한 불상을 다시 조성해 오늘날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대적광전 오른쪽에는 독특한 형태의 노주(露柱)가 있다. 노주란 ‘노반지주(露盤之柱)’의 줄임말로써 처음에는 전각의 정면 귀퉁이에 세우는 두 개의 장대였다가 나중에 탑의 상륜부를 구성하는 부재로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의 조성기법을 간직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어 보물 제22호로 지정되었다.

미륵전과 노주 이외에도 보물 제23호인 석련



대(石蓮臺), 보물 제24호로 지정된 혜덕왕사진응탑비, 보물 제25호인 오층석탑, 수계법회 장소로 사용되는 방등계단(方等戒壇)과 계단의 중앙에 있는 보물 제26호인 석종형(石鐘形) 부도, 보물 제27호인 육각다층석탑, 보물 제28호로 지정된 당간지주 등 금산사에는 많은 성보문화재들이 있다.

번뇌와 망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세워진 금산사, 천년 고찰 금산사는 봄이 되면 화려한 꽃으로 중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한다. 매표소에서 이어지는 벚꽃길과 새로 조성된 ‘우리꽃길’은 봄이 향기를 듬뿍 풍기며 잠시나마 세속의 번뇌를 잊게 해줄 것이다. 더

구나 능선에서 정상까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모악산은 봄의 정취를 느끼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금산사 가는 길

승용차

호남고속도로 금산새C에서 내린 후 전주까지 이어지는 712번 지방도로를 타고 금산사 방면 이정표를 따라가면 금산사 주차장에 닿게 된다.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 비교적 찾기가 쉽다. 금산새C에서 사찰까지는 7km 남짓 된다.

법왕사 소식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천장공사 완공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천장 단청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이번 공사는 착공 13년만인 11월 22일부터 시작하여 4개월만인 3월 29일 완공된 것으로 우물 반자와 여법한 단청이 도량을 장엄하고 있습니다. 바닥공사도 곧 완공하게 됩니다.

제주도 약천사 2박3일 순례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 동안 제주도 약천사를 비롯해 불교성지를 순례하고 봄을 맞은 제주관광도 겸하는 순례법회를 봉행합니다. 법회 첫째날은 천왕사와 관음사를 참배하고 점심 공양 후 에코랜드 등을 둘러본 뒤 약천사에서 1박을 합니다. 둘째날에는 마라도 기원정사를 참배하고, 석부분재 테마파크 등 관광지를 둘러본 뒤 일반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뒤 고관사를 참배하고 한라산 마방목장과 민속체험 마을 등을 보고 대구로 돌아올 예정이오니 많은 불자들의 동참바랍니다. 동참금은 33만원이며 300명 선착순 접수합니다.

팔상성도 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3월 8일(음력 2월 8일) 부처님 출가제일을 시작으로 3월 15일(음력 2월 15일)까지 8일 동안 팔상성도 대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법회는 특히 비구니 스님들로 법사진을 구성하여 매일 2백여 불자들이 동참,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팔상성도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탄생에서 열반까지 중생 구제를 위해 보이신 모든 행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천일기도 제6차 기도 초하루에 봉행

지난 1월 15일 입재한 천일기도 6차 기도가 3월 초하루인 31일 초하루 법회 후 오후 2시 본당에서 100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기도법회는 주지스님의 집전으로 2시간 30분 동안 약찬게 49독후 축원을 하였습니다. 한편 제10차 기도일에는 기도예에 동참하신 불자들의 직계, 친가, 외가 합동 천도재를 올릴 계획이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천일기도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두 차례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봉행

지난 3월 7일 입재한 제26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49재는 백고좌법

법왕사 소식

회 회향일 전일인 4월 24일 회향합니다. 재일은 매주 목요일입니다.

가창 제2해오름요양원 부지 6백평 추가 구입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115번지 일대에 부지 9백평을 마련해 추진 중인 제2해오름요양원 건립불사에 추가로 6백평을 구입, 모두 1천5백평의 부지 위에 건립공사가 진행됩니다. 조만간 시설 설계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 현재의 요양원 부족 현상을 극복할 계획입니다. 불자들의 깊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4층 대적광전 삼존불 봉안불사 봉행

법왕사에서는 복지관 4층 대적광전에 봉안할 삼존불 - 법신, 보신, 화신불 모연을 시작하면서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높이 9m에 이르는 웅장한 대적광전을 장엄하는 삼존불은 법신 비로자나불, 보신 아미타불, 화신 석가모니불을 일컫는 것으로 모든 부처님 가운데서도 가장 존송받는 불상으로 무량한 기도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당 천장에 드리를 대형 상들리에 9개 시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하실 불자님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삼월 삼짇날 평생위패 합동 천도재

삼월 삼짇날인 음력 3월 3일 평생위패 합동 천도재를 올립니다. 법왕사에 위패를 모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보살계, 불명수지법회 동참 신청 접수 받습니다.
- 초파일 법당 연등 접수 받습니다.

홍순영 선생님의 작명 · 개명 · 택일

법왕사에서는 풍수 및 역학 전문가 홍순영 선생을 모시고 불자님들의 작명 · 개명 · 택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작명이나 사업체 작명, 개명, 결혼 택일 등 일생의 중대사와 관련된 일들을 사주와 명리의 역학 이론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이니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강사 홍순영 선생



- 약력 : 대한풍수학회 회장
한국역학인총회 고문
동양문화연구원 원장
- 저서 : 「나도 풍수가 될 수 있다」
「명리특강 1, 2, 3」
- 논문 : 「수리길흉론」
「나경 사용법」



문 의 : 766-3747, 9088

새로 오신 법우님

홍권표 송완호 김성조 이재구 서명덕
정영희 채동희 최수학 황치구 김성조
추교홍 우성복 우재균 박승태

불사 올리신 분

◎ 대적광전 삼존불 모신 분

1 심규암 권영숙 2 김명주 김미선
3 김호연 윤건불심 4 전재술 윤동현
5 신명균 구실상화 6 신현수 김진숙
7 강학철 신명재 8 백상현 조감로연
9 최병임 이재영 10 박경영 유영옥
11 김영웅 김정연 12 백대행심 정선규
13 이희동 전숙희 14 성진경 박경란
15 차광하 최선애 16 박정숙 이재학
17 김기수 사공순옥 18 이종량 이정자
19 한희수 임숙향 20 이세정 정돈
21 김상수 이지송 21-1 이유정행 석광준
22 임덕규 박인숙 23 박해진 백월순
24 박경훈 박수정 25 장재달 이춘희
26 박진태 김경숙 27 홍승규 곽중란
28 최성주 이종매 29 오창석 오수미
30 장선정혜 박준민 31 정효교 권영란
32 정정교 박신자 33 문국연 이복순
34 황병욱 문명희 35 조흔재 박인숙
36 권상태 김잠분 37 유정일 최정순
38 김명필 박재선 39 황병덕 박말선
40 여축동 강희목 41 박철주
42 김태홍 김부건 43 이길우 조규인
44 장태중 엄태영 45 홍석표 최명숙
46 박무착심 남경형 47 김태한 김복희
48 문경주 주정남 49 서창덕 박경아
50 권영철 조한숙 51 이현우 정용임
52 정연국 류영희 53 이수정 조갑래
54 양영갑 권귀정 55 정연직 정연목
56 정일주 자매들 57 정광준 박홍자
58 김옥숙 정지현 59 이택형 김선봉
60 김영수 추미옥 61 이상태 임상덕
62 박병기 주복귀 63 조창완 윤숙원
64 안동수 정운자 65 추명석 이호진
66 이보단화 서정호 67 신경기 권계자
68 박길수 조규흔 69 남정오 구덕수

70 안중현 안재현 71 이병규 이승현
72 이금선 황재춘 73 김중호 김양순
74 최석돌 최남구 75 구보호 정명순
76 지병윤 김경미 77 양재인 유옥분
78 이석현 김영현 79 류근화 류성철
80 이동학 최무희 81 양문갑 황춘연
82 김태훈 이진주 83 이성시 권말남
84 이수희 오순준 85 김기환 정대원성
86 우종돌 이윤화 87 강승구 김미경
88 정하권 김순희 89 신조순 신지원
90 이광진 엄해정 91 김복남
92 김은정 김광현 93 김용업 최경희
94 이일진행 95 윤환희명
96 안기환 이경애 97 이민형 김필수
98 배주수 윤영숙 99 정평수 이성재
100 신용홍 장정희 101 조준형 안현주
102 박말순 김기봉 103 김일진 황정자
104 김홍석 김민재 105 김억한 손순이
106 박익창 김노선 107 이상계 우길원
108 신주식 이형자 109 권영호 김기수
110 강정선 김상철 111 류윤만 이경숙
112 서보영 박해정 113 장오규 박임순
114 박병윤 김자연 115 남인식 이은숙
116 이진욱 권애란 117 윤계한 장영숙
118 박호윤 권경민 119 박동근 황미선
120 전용훈 신영숙 121 안병목 안재찬
122 류홍열 노기주 123 이서락 류경필
124 서정훈 서영지 125 김경희 김민철
126 배해동 박분남 127 진건부 최미화
128 최병일 고은경 129 전영일 권홍자
130 김차연 황복자 131 류시환 고점자
132 조상노 김정화 133 우용후 배은숙
134 亡정동필 차미희 135 박종진 김순임
136 박종철 김주양 137 이원석 허정연
138 신웅학 민정희 139 김태익 안선희
140 김상윤 김중숙 141 이자비심 류충래
142 황현식 김순미 143 박현수 류옥연
144 임인한 김경자 145 임창호 권세한
146 박기화 정경동 147 박춘용 권정순
148 황금순 이성렬 149 류병영 신희숙
150 김상한 김영순 151 전우수 최정미
152 오일 이성불심 153 박용관 채금연
154 여상수 정중화 155 송용순 배숙자

156 이바라일 윤동환 157 박진동 정옥모
158 김중윤 159 서민관
160 서미경 서미희 161 심해정 심소미
162 최재훈 최윤재 163 오창혁 오재대
164 정수아 165 김동현 김예원
166 신장희 167 김옥희
168 이점예 169 박종환 이정자
170 이현우 이상건 171 이철재 정연이
172 지장회 일동
173 이희로 권정화 이영호 권주영 이태화 이준목
이주향 이재홍
174 금동인 권정희 금태운
175 서진호 서명진 176 박종연
177 권현구 178 강현성 서경아 강경근
179 장삼술 전숙한 고태선
180 장재혁 임익성 장두원
181 장재봉 이하늘

◎ 대적광전 바닥장판 불사하신 분

박대희 이대해궁 최태희 최재훈
문선재(풍경) 신승훈(자재) 백대행심
김종황 김임태 이영석 최남규 박종성
박경훈

◎ 만불전 원불 올리신 분

최대일 영가(지장보살 대불)

◎ 한평불사 올리신 분

김인숙 박종환 이정자 김종황 박준표
백경원 김하균 송상규

공양 올리신 분

◎ 과일공양 올리신 분

이정희 정광준 허성균 김정석 이태화
심재용

◎ 떡공양 올리신 분

정입분 권도형 배수현 박종길 이세정
권영희 신정순 강유미 정현균 홍분희
권영숙 구실상화 정영미 박해진(직접해움)
전숙환 자운스님 김임태 최서원성

◎ 대중공양 올리신 분

오병화(두유 2박스) 지장회(향일암 순례 점심공양)
안준영

◎ 공양미 올리신 분

이희동 정광준 김기수 권혁일 권영숙
김용균 김시훈 최정심행 이수월심 오금옥
심보현

생필품 보시하신 분

류윤만(A4 1박스, 테이프 10개)
양혜영(화장지 6박스)

연등 올리신 분

◎ 초파일 만불전 대등 올리신 분

신장희 지장회 관음회 남경정공 조영기
백보현행 청구도사각 창신중기 동양신성가스

◎ 초파일 분당 대등 올리신 분

1 류윤만 2 양문갑 3 김봉조

◎ 영가 대등 올리신 분(복위자)

1 이정상 2 전옥남 3 권영숙

◎ 갑오년 만불전 일년가족 법당등 올리신 분

186 서규하 187 권순미 188 정태진 189 유영철
190 박재술 191 황보일 192 이종량 193 권병기
194 최재승 195 이재욱 196 장현목 197 우영근
198 이정철 199 김경희 200 홍순영 201 김오현
202 우성국 203 황치구 204 권종오 205 추교홍
206 경조스님 207 백창희 208 김옥영 209 정무시
210 권태모 211 김정숙 212 장옥도 213 권혜경

◎ 갑오년 분당 일년가족 법당등 올리신 분

1 장기면 2 손점순 3 강위선 4 여후용
5 박남석 6 박경영 7 권혁일 8 유춘발
9 이은숙

◎ 영가등 올리신 분(복위자)

1 홍순식 2 정연옥 3 도대록 4 김순옥
5 김옥희 6 류윤만 7 박귀남 8 박경영
9 정연국 11 유영목 12 김홍순 13 권현만
14 박현규 15 이정란 16 김용균 17 이어범화
18 박상옥 19 박동숙 20 김창득 21 류수민
22 유기상 23 최재성 24 김창환 25 김영자
27 박해진 28 백월순 29 최태희 30 장옥도

◎ 꽃등 올리신 분

김순연 이효조 임석빈 박종규 이은숙

이진옥 남기덕 이동재 이동주

천일기도 올리신 분

조철제 이점예 최석돌 이철재

가사 올리신 분

정광춘 배수현 김희동 장재혁 최재훈
변선유화

돼지저금통 회향 하신 분

권도형 김문수

백고좌 법사비 도움주신 분

여백동 신명균 대자심 김경자
구실상화 최서원성 백범성행 장선정혜
김대덕화 장백력화 박경덕심

왕생극락하옵소서

- ◆ 김용남 영가님의 기제사가 3월 5일에 있었습니다.
- ◆ 변영구 영가님의 초제가 3월 5일에 있었습니다.
- ◆ 김점이 영가님의 초제가 3월 5일에 있었습니다.
- ◆ 차옥순 영가님의 초제가 3월 9일에 있었습니다.
- ◆ 박계남 영가님의 초제가 3월 9일에 있었습니다.
- ◆ 이태훈 영가님의 막제가 3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 류윤기 영가님의 막제가 3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 서위분 영가님의 막제가 3월 23일에 있었습니다.

■ 부처님 출가에서 열반까지 팔상성도 비구니스님 8인 초청 백고좌 특별법회(3월 8일~3월 15일)가 있었습니다.

■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입재가 3월 7일에 있었습니다.

■ 법왕불교대학 개강이 3월 14일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2월)

◎ 수입내역

이성환 5천원	홍새미 1만원	오금옥 1만원
이종희 5천원	반룡사 1만원	조규인 1만원
오난옥 5천원	윤순희 1만원	정경숙 1만원
사공관 1만원	이점례 2만원	김미옥 2만원
전행연 1만원	채옥연 5천원	박대희 5천원
김수라 1만원	신세호 1만원	배수현 2만원
이남희 1만원	최분규 1만원	박미경 2만원
산돈식 1만원	안상준 2만원	양니영 5천원
이용옥 1만원	여택동 5천원	강소남 5천원
황미선 2만원	김외환 1만원	이종희 5천원
조용수 1만원	현인숙 1만원	박순남 5천원
안경순 1만원	김정희 1만원	노수정 1만원
박용관 1만원	장인숙 5천원	권계화 1만원
박원태 1만 5천원	김정순 3만원	권오성 1만원
유명옥 1만원	신혜경 5천원	김무용 5천원
강심규 5천원	박태숙 5천원	이호동 5천원
신화식 1만원	이현우 1만원	김기덕 2만원
조창신 1만원	황준원 1만원	안명희 1만원
최경순 1만원	성외련 2만원	문정애 2만원
이임숙 2만원	이승미 1만원	최창숙 5천원
류운만 1만원	노귀자 5천원	고연숙 1만원
주성순 5천원	조정자 5천원	김대현 5천원
정활수 3만원	임상덕 1만원	이정옥 1만원
권명진 1만원	강인숙 1만원	장성규 5천원
정무시 1만원	김정임 1만원	김임태 5천원
김미자 1만원	도화순 5천원	김재숙 1만원
정시영 1만원	권보형 2만원	권숙자 1만원
정운현 5천원	김은주 1만원	장재혁 5천원
현영희 1만원	강영도 2만원	홍세림 2만원
양봉훈 1만원	이재봉 5천원	김영랑 5천원
성승길 1만원	김형택 2만원	이정훈 1만원
박재후 1만원	허유미 5천원	김정규 5천원
심규암 5천원	장우성 1만원	정경석 2만원
엄세비 1만원	한희록 1만원	황지영 5천원
김영일 1만원	정옥선 1만원	김정자 5천원
장효주 5천원	남기웅 1만원	권영희 3만원
김기수 2만원	구정대 2만원	홍유식 5천원
박병준 1만원	황상옥 2만원	이정희 5천원
윤광숙 5천원	고선영 1만원	김순태 1만원
이전희 5천원	김우영 1만원	강숙영 1만원
김민주 1만원		김예분 1만원

최은순 1만원	장성용 1만원	임승현 1만원
박명숙 1만원	김경호 1만원	정대영 1만원
권영희 1만원	최복례 1만원	백옥수 5천원
손말두 5천원	박귀분 1만원	김진성 1만원
진봉희 1만원	정선옥 5천원	김원형 3만원
심종순 5천원	김주희 5천원	박치민 5천원
박순영 5천원	한규매 5천원	신임선 5천원
강유미 1만원	임익균 1만원	정연이 5천원
김승환 1만원	김경환 1만원	곽순복 2만원
이인순 5천원	박정목 1만원	강선옥 1만원
김봉숙 5천원	이병희 1만원	김순란 3만원
신구자 5천원	조영석 1만원	박학순 1만원
이종민 2만원	무기명 6만원	이강복 1만원
이은희 5천원	우포정사 1만원	시명스님 5천원

합계 1,735,000원

◎ 지출내역

- CMS자동이체 수수료	66,000원
- 문자통지 수수료	2,000원
- 부식재료구입	942,000원
- 약품구입	77,630원
- 요양원 필요물품구입	202,880원

2월 총 사용내역 1,290,51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후원물품 보내신 분

남보한 어르신 보호자	: 비타500 1box
유세모 어르신 보호자	: 굴 2box
한을식 어르신 보호자	: 요구르트 110개
백복순 어르신 보호자	: 현금 1만원, 보리빵 1box
박말보 어르신 보호자	: 믹스커피 1box, 박카스 1box
정잠분 어르신 보호자	: 과자선물세트 1set
차수화 어르신 보호자	: 바나나 1손
서윤수 어르신 보호자	: 우유, 비피더스 1box
이시종 어르신 보호자	: 카스타드 4box
장태순 어르신 보호자	: 오렌지 6개, 딸기 1팩

해오름 소식



참사랑문화공연단

이번 달에도 참사랑문화공연단 여러분께서 어르신들을 위해 유쾌한 공연을 펼쳐주셨습니다!



녹색환경봉사단

매달 셋째주 일요일마다 어르신들의 헤어을 관리해 주시는 녹색환경봉사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놀이프로그램

매주 금요일 어르신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오시는 김명희 자원봉사자님 덕분에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네요^^

김태원 **어르신 보호자** : 딸기 6팩, 기저귀 1box
 김민지 **보살** : 고기 5만원 상당
 장어와미꾸라지 **추어탕** : 40인분
 녹색환경봉사단 : 기저귀 1box, 일자기저귀 4box

※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하신 물품과 후원금을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활동 하신 분

3월 16일 녹색봉사단 15명
 3월 7일, 14일, 21일 김명희 자원봉사자
 3월 18일 참사랑공연단 6명
 3월 23일 써포터즈봉사단 10명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신규 입소 **어르신** : 권민자

자원봉사자 모집

-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 **신청방법**
- T.053-766-5767 담당 사무국장 강선옥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사무실(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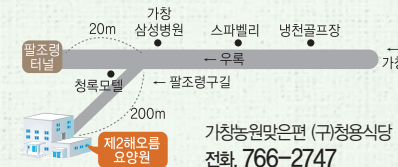
-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제2해오름요양원·병원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찮으신 어르신 25분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는 분들은 많은데 복지관 내 요양원의 수용인원이 한계에 차서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법왕사는 제2해오름요양원과 병원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동참하고 계신 분

백경원	1명	박종환	1명
김중환	1명	박준표	1명
송상규	1명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름 새겨드립니다)

문의 종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법왕불교대학 초급, 중급, 고급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초급 주야간반을 비롯하여 불교에 입문하여 더욱 깊은 교리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을 위해 주야간으로 중급, 고급반을 개설합니다.

- ◎ **초급반(주야간)** 실상스님(법왕사 주지)
기초교리
- ◎ **중급반(3개월)** 영일스님(스리랑카 유학)
빨리불교 원전
- ◎ **고급반(5개월)** 경전강좌

- 법왕사 문화 강좌 개설 -

- ◎ **다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강사 : 김정규 선생님
- ◎ **사찰요리** : 개강예정
- ◎ **합창단**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강사 : 정무시 지휘자 선생님
- ◎ **사물놀이**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강사 : 이정화 선생님
- ◎ **서각**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강사 : 신임선 선생님

법당 일년등 및 초파일 연등 동참 받습니다

연등은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찬탄하고 중생의 무명업장을 소멸하는 크나큰 공덕을 드러냅니다.
법왕사에서는 계사년 1년을 밝힐 법당 일년등, 가족등, 사업등, 영가등과 초파일 연등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수희동참하시어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주위에도 널리 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등 10만원 이상
- 영가등 5만원 이상
- 사업등 20만원 이상



- * 동참금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 사업등에는 사업체 이름을 넣어 드립니다.

계 / 좌 / 번 / 호

-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제26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봉행

법왕사에서는 제26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입재한 49재는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올리며 회향일인 4월 24일 회향합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배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도 봉행합니다.
법회기간 동안 조상영가 천도재를 올림으로써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49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기도

사 재 4월 3일(음. 3월 4일)	준비물
오 재 4월 10일(음. 3월 11일)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육 재 4월 17일(음. 3월 18일)	겉옷, 신발(짚신) - 사중에 준비
막 재 4월 24일(음. 3월 25일)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보살계(무관스님) 4월 25일(음. 3월 26일)	공양미 - 3되3홉 또는 15,000원
	수자령 - 분유, 배냇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문의 법왕사 766-3747, 9088

※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을 공양하실 분은 중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행단체 모임안내

신 장 회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산신기도회 매월(음) 16일 오후 4시

관 음 회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선우회(참선반) 매일 오후 7시~9시 주말 자유정진

인 등 회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지 장 회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합 창 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